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 주간충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성경연구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헌교회 THE WEEKLY CHŒ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용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들 2007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지금, 천국일꾼 양성을 위해 세운 22개 교회학교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이미 강습회와 영성훈련을 마친 상태이며,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들은 믿음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엡 3:16) 특히 이번 여름에는 모든 교회학교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 (행 2:47)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되어 말씀을 배웁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경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었듯이 이번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십자가를 전하는 성경의 도구로 거듭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여 주십시오. 다른 이유 때문에 복음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엡 6:18)

\*2007년 각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보는 본지 7면 참조



###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을 들으라! (금요찬양집)

## 입으로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없이 대할 수 없다는 진리를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였다. (마 8:1~3)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기 힘들 때에, 데미안은 기꺼이 그들에게 들어가 한 가족처럼 그들을 사랑하여 주었다. (고후 2:14, 15; 히 10:22; 요 15:7, 8, 12, 13) 데미안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그들에게 전하였다. 성경님은 데미안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이 하나씩 벗겨지도록 하였다. 몰라카이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급해 하였다. 데미안의 얼굴에서는 사랑의 눈물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선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고후 5:16~18)

어느 날 아침, 데미안이 실수로 끓는 물을 그의 발등에 떨어뜨렸으니 아무런 감각이 없음을 놀랐다. 그는 눈을 감고 주님을 찾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데미안의 마음이 요동치 않았고 도리어 깊은 평안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빌 4:6, 7) 평소 그는 항상 "My Christian Friends" (나의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부르면서 성경공부를 시작했었다. 그러나 데미안은 이 날 아침, "My dear friend lepers" (나의 친구 나병환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성경공부를 시작하였다. 이제 데미안은 나병환자가 되었다. 그는 몰라카이의 형제들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삶을 맞았다. 데미안의 시선은 벨기에에 장사되었으나 몰라카이 주민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의 한 쪽 팔은 교회당 옆에 옮겨 묻혔다. 몰라카이 섬의 나병환자들은 하나님의 종 데미안으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접했고 확신하고 간직하게 되었다. 이것이 데미안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다. (갈 2:20)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무엇을 보는가?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목적은 자신들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만족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엡 2:3)

### 다음주일(7월 1일), 맥추감사절 및 제5차 성찬식(1~5부 예배)

맥추감사절은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후에 50일째가 된다 하여 '오순절' (행 2:1), 유월절을 지나 칠 주가 일곱 번 지난다 하여 '칠칠절' (출 34:22),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두는 수확기라 하여 '맥추의 초실절' (출 34:22)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맥추절을 지키라" (출 23:16)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심만큼 맥추감사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번 맥추감사절은 제5차 성찬식과 함께 하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1~6월)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고전 11:25)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매순간마다 지켜주시는 사랑의 손길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드릴 맥추감사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눅 21:2) 헌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 2:7)

### 오늘 찬양예배 시에 제3차 학습 및 세례식(유아세례식은 갈릴릴을 오우 3시)

#### 7월 교회 일정

- 1일(주일) 맥추감사절, 제5차 성찬식(1~5부 예배 시)
- 4일(수) 권사님 헌신예배(수요2부 예배 시), 정기당회(수요2부 예배 후)
- 11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수요 1부 예배 후, 여전도회)
- 14일(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오후 2:00, 남전도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앞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다른 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고후 3:2) 우리 모두는 1세기 전이나 현재에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우리를 둘러싼 믿지 않는 자들은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보기를 원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변호하는 것에 상한듯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성경을 인용한 토론과 변호로는 결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수 없다. 상대방을 향한 사랑 때문에 건달 수 없어 하는 진정한 삶의 모습을 그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믿음의 실체이다. (마 5:16)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진리이다. (요 4:28~30)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빠르게 변화하며 또 그 어느 때보다 알기를 갈망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마 4:17)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오라!"고 부르시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는 "가라!"고 명령하신다.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방백과 수단은 전혀 다른 모양일 수도 있다. 같은 성경님의 역사이지만 목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사도 베드로는 목문이 열렸을 때 자기 고집이 아니라 성경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옥에서 나왔던 것과 같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창조적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전하고 또 전해야 한다. 세대는 바뀌어도 복음은 새로 오는 세대를 향하여 계속 전파되어야 한다.

은 세계 인구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사라진 세속적인 메시지가 계속해서 기독교의 자리를 대신하여 밀려오고 있다. 과거에 흥룡했던 기독교 도시에서는 이제 기독교를 찾아볼 수 없고, 이슬람의 중심지로 바뀌었다. 중국, 아시아, 동유럽, 러시아 등의 지역에서는 정치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갑자기 문을 닫거나 박해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오직 성경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지해야 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아멘.

# YOU MUST BE BORN AGAIN

*<sup>(1)</sup>Now there was a man of the Pharisees, named Nicodemus, a ruler of the Jews; <sup>(2)</sup>this man came to Jesus by night and said to Him, “Rabbi, we know that You have come from God as a teacher; for no one can do these signs that You do unless God is with him.” ... <sup>(7)</sup>“Do not be amazed that I said to you, ‘You must be born again.’*

*<sup>(8)</sup>The wind blows where it wishes and you hear the sound of it, but do not know where it comes from and where it is going; so is everyone who is born of the Spirit.”(John 3:1~8)*

I have been preaching Christ at this church for almost ten years now. During this time, I have privately told some of our top religious people, who are well-intentioned but unenlightened, that they really do not believe in Jesus Christ, and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persecuting Him. In all my Sunday sermons I have never mentioned them, but today I am publicly going to talk to them.

Nicodemus was a Pharisee, a top religious official, who came to Jesus Christ, and Jesus Christ sincerely loved Him and talked to him about the secret of heaven. What did Jesus say to this high religious man? Why did this Pharisee come to Jesus in the night? Nicodemus visited Jesus at night most likely because of peer pressure; most of his colleagues vehemently opposed Jesus' ministry. Nonetheless, his heart truly wanted to talk to Jesus, just as Jesus truly wanted to talk to him. Jesus simply told him, 'You must be born again!' Sadly, today's churches thrive on beautiful topics concerning humanity, love, kindness, sympathy, sincerity, and the like, not Jesus' message. Jesus' message to Nicodemus was: 'YOU MUST BE BORN AGAIN!' Too many of our high religious representatives have religion but no spiritual reality. They have godliness but no faith! Nicodemus learned from Jesus about new life. It does not matter whether you have church membership or that you have been coming to church for 60, 40, 10 years or this is your first time. What really matters is that you have new life! Jesus wants you to have new life. Today I want all our pastors, elders, deacons, teachers, and everyone who thinks they are a good Christian to hear this sermon.

Nicodemus had a need. He came to see Jesus at night probably because he was afraid of what his colleagues would think, or perhaps he wanted uninterrupted time with Jesus. Whatever the nightly reason, he came to Jesus because he was seeking after truth, "Now there was a man of the Pharisees, named Nicodemus, a ruler of the Jews; this man came to Jesus by night and said to Him, 'Rabbi, we know that You have come from God as a teacher; for no one can do these signs that You do unless God is with him.'" (vv. 1&2) He heard about Jesus' miraculous healings and powerful preaching. He believed God was with Jesus. He did not need religion, for he was already a Pharisee. He did not need a promotion, for he was already a ruler of the Jews. He did not recognize his real need until he was with Jesus. Before he came to Jesus, he did not know he had a need, but after meeting Jesus he found out that he needed to be born again.

Jesus told Nicodemus,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v. 3) Isn't it wonderful to know that Jesus was available to Nicodemus even at night? If you want to meet someone of great importance, you cannot schedule a time with them based on your availability or at night. It just does not work that way. Jesus is always available. He is never tired or too busy for you. He always has the time for those who really come to Him. He knows what you need. He knew Nicodemus' problem, even though Nicodemus did not know. He knew why Nicodemus came to Him. He understood the problem and what was troubling his heart. Jesus knows your situation: your dread of death, your heavy burdens, and all

your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Without asking, Jesus told Nicodemus that unless you are born again you cannot see, yet alone enter, the kingdom of God. There is no other way to enter His kingdom, no other way to be sure of heaven. Confused by Jesus' statement, Nicodemus asked,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He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and be born, can he?" (v. 4) Nicodemus thought Jesus was talking about another way, physical birth, but Jesus made it really clear. He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Do not be amazed that I said to you, 'You must be born again.' The wind blows where it wishes and you hear the sound of it, but do not know where it comes from and where it is going; so is everyone who is born of the Spirit." (vv. 5-8) Jesus answered the question of this religious man. He explained to him that this is not about earthly things. A lot of people want to get earthly blessings, but Jesus said,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What He is talking about is spiritual birth,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How can you be born of the Spirit? Jesus said,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even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Jn. 3:14) After God's people spoke against God and Moses, He sent fiery serpents among them, "and they bit the people, so that many people of Israel died." (Num. 21:6) God told Moses to make a fiery serpent of bronze, "And Moses made a bronze serpent and set it on the standard; and it came about, that if a serpent bit any man, when he looked to the bronze serpent, he lived." (Num. 21:9) In other words, if you want to be born again, you have to look at Jesus, "so that whoever believes will in Him have eternal life." (Jn. 3:15)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just as Moses lifted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Jesus has the power of eternal life, just as the bronze serpent had the power of temporal life. I am sure a lot of people in Moses' time thought this idea was a joke, just as I am sure many people today think that looking at Jesus is dumb. The truth is that those people, who believed it, got their life back again, just as the people who look at the Son of God and believe in Him get saved. John 3:16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Personal salvation is not achieved through good deeds but through the cleansing of the new birth, "He saved us, not on the basis of deeds which we have done in righteousness, but according to His mercy,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ing by the Holy Spirit." (Tit. 3:5)

My dear friend, I am talking to the real high religious people. Your pride makes you think you are good, so you do not listen, just like all the important religious officials during Jesus' earthly ministry time. They thought they were the best. They thought they knew it all. I am asking you today, even though you think you are the best Christian, are you born again? I am telling you today, if you want to see the kingdom of God, YOU MUST BE BORN AGAIN! 🙏

#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sup>①</sup>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sup>②</sup>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시는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sup>③</sup>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sup>④</sup>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1~8)



김성관 목사

제가 충현교회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한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몇 사람들에게 그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으며, 언젠가는 주님을 꺾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사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일 설교 시간에 저는 한 번도 그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지만 오늘은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고위 종교 관원이었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의 비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종교 지도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바리새인은 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까닭은 틀림없이 동료들의 압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동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을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서 그와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처럼 그 역시 예수님과의 대화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슬프게도 오늘날의 교회에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인류애, 사랑, 친절, 동정, 진실 등등 매우 아름다운 주제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교회의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는 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참 믿음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대해 배웠습니다. 동쪽 교인들은 아니든, 또 10년, 40년, 60년 동안 교회를 사셨든 아니면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든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새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가 목사, 장로, 집사, 교사뿐만 아니라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니고데모에게는 갑갑함이 있었습니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두려워하였는지 아니면 예수님과의 대화를 방해받고 싶지 않아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어찌 됐건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진리에 대한 갈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시는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1,2절)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병 고침의 기적과 권세는 말씀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분 상승도 원치 않았습니다. 이미 유대인의 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전까지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기 전까지 그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3절) 범종교인들도 예수님에게서 니고데모의 면담을 허락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려고 약속을 정하면서 작심 가능한 시간에 맞추거나 밤중에 약속을 잡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도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할 만큼 피곤하거나 바쁘신 적이 한 번도 없

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니고데모 자신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가 자신을 찾아왔는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지닌 문제를 이해하고 계셨고 그의 마음을 번민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거운 짐,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그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 외에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4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또 다른 방법 곧 육체적인 탄생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5~8절) 예수님은 이 종교 관원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이 땅의 기적에 대한 말이 아님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축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이 아닌 영적인 탄생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어떻게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뱀을 하리라"(요 3:14)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민 21:6)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미로 불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나뭇말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나뭇말을 쳐다본즉 살더라"(민 21:9) 다시 말해 거듭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5)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뱀이 일시적인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성적에 여기는 것처럼 분명히 모세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뭇말을 쳐다보는 행동을 비롯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16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들 각자의 구원은 신생이 아니라 거듭난 의심을 통해 얻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샘과 성령의 새물께 하심으로 하셨나니"(딤후 3:5)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권위로 가득 찬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을 선다하고 속여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욕할 때 고위층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여러분은 정말로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

2007년 제2차 청지기훈련을 통한 은혜

# 서로 사랑하자

(요일 4:7~11)

## ※ 감사해요, 오기 망설였는데... ※

이번 청지기훈련엔 나만 은혜받고, 훈련받아서만 안 되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굉장히 크게 들렸다. 사실, 이 복음을 나 혼자만 누리려면 너무 아까웠다. “그래 기도하자.” 주님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한 동료의 손을 붙잡게 하셨다. 그녀는 모든 것이 마땅치 않았지만 억지로 나와 함께 교회로 향했다. “저, 피곤해서 졸지도 몰라요.” 2시간 가량 진행될 집회 시간이 이미 그녀의 마음을 어둡게 했고, 그녀의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나의 마음은 타들어갔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집회 시작 전 찬양을 하는데 표정이 시큰 뚫 했다. 찬양하자고 하자 “듣는 게 더 좋아요.”라고 말했다. 드디어 집회가 시작되고 마음이 선포되었다. 그런데! 그녀의 자세가 바뀌기 시작했다. 허리가 앞으로 펴지고, 가방에서 슬쩍 볼펜을 꺼냈다. 중간에 찬양을 부르는 시간엔 어느 새 같이 부르고 있었다. 집회를 마치고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냈다. 잠시 후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왔다. “감사해요. 정말 오기 망설였는데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주님! 제가 낙심할까봐 모두 알아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크고 벅찬 사랑과 감동을 오늘 저와 동행한 그 영혼에게도 똑같이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시연(집사, 16교구)

## ※ 처음으로 맞이한 청지기훈련 ※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 숭배와 무속인을 찾아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저에게, 정말 믿을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교회를 다니라는 강력한 권면을 받았습니니다. 눈앞에 거주하고 있던 저는 적당한 교회를 찾다가 흥현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문턱에도 가 보지 못 했던 저로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일 년 동안 저 혼자 흥현교회를 다니며 눈물로써 주님께 무작정 기도드렸습니다. 새벽기도와 예배는 남편을 주님께 인도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의뢰하지 않으면 주님은 남편과 아들을 결국 당신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착한 청지기훈련! 남편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니다. 남편은 연신 눈물을 닦아내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 시간 내내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어린이가 같은 마음이 되었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감찰같이 강직한 사람이었지만, 남편은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결국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부정할 수 없음을 확실히 깨닫게 해 주신 귀하고 귀한 청지기훈련이었습니다.

김영선(성도, 새가장목부)

## ※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

내 믿음으로는 아주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정작 내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 죄 때문에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를 죽임으로써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내 일만만을 구하며 살아왔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으며, 계산상으로 주님을 이용하였다. 내 몸이 약하고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주님의 일도 열심히 감당하지 않았다.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내 모습이란 말인가? 이는 배반 주님께 대한 사랑에 대한 속한 것이 아니다. 그 큰 사랑을 배반하는데 어찌 사랑과 관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부정적인 표현의 사랑은 내가 다 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시기, 자랑, 교만, 유익, 분노, 불의를 기뻐하는 것! 모두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이지만 내 삶은 이런 것들을 아주 당연하게 행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향기를 나타내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했지만 정작 실천의 모습은 하나도 없었다. 이처럼 청지기훈련 때 주신 말씀은 굳어진 나의 마음에 강하게 파고 들어왔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실으로 회개하게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며 온유한 모습으로 조금도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신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역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는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담기를 원한다. 축복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다 따라가진 못 해도 기도함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리라!

김진영(성도, 23교구)

## ※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죄인! ※

축복할 수 없는 그 사람!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람이 내게 임했네! 매번 청지기훈련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하며 기다린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이 날을 기다리는 줄 알았던 나의 모습은 사실 그렇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청회가 시작되기 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금 뜨거운 십자가의 그 사랑 품에 하소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무것도 아닌 나, 죄인인 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심령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눈에서 어느새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동안 저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척하였지만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착각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세 번이나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서는 갈보리,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영혼을 품게 하시며 또한 용서하지 못했던 어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에게 십자가 사랑 허락해 주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김민우(청년1부)

## ※ 사랑의 중매에 걸리고 싶어요 ※

청지기훈련 중 찬송가 37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를 부르며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며,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니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나는 요즘 아이들이 서로를 향해 거칠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애썼는데 내 사랑의 말과 방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청지기훈련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요한일서 4:17-18 말씀을 암송하며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보면서 “서로 사랑한다면 저러지 않을 텐데...” 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무척이나 마음이 아프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아, 내 의지로 사랑하려 애쓰다 좌절했던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도 십자가의 사랑도 몰라 투기하고 자랑하고 고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내 유익을 구하고 자주 선하고 악한 생각을 나를 내어 주고 불의한 것도 내 유익을 위한다면 못본 척 했던 내 옛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기 원합니다. 천국에도 가고 싶고 세상에서도 남들이 누리는 만큼 누리고 살고 싶던 나를 성령님께서 만지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셨고, 예수님뿐이었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거절하지 않는 그 사랑에서 언제까지나 멀어지지 않는 사랑의 중매에 걸려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표정과 의지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성령님께 내려놓습니다.

김영미(집사, 24교구)

# 끝없는 사랑 친밀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 ● 놀라운 영적 회복의 기회 ●

그 동안 몇 차례의 청지기훈련 동안 나는 늘 늦어 허겁지겁 교회로 달려와 제대로 말씀도 듣지 못하고 돌아가곤 하였다. '회사가 항상 늦게 끝나니 어쩔 수 없어.'라는 내 스스로의 변명과 자기 합리화였지만 정말 돌아보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문제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못하니 내 삶과 모습들, 현실의 삶에 때로는 지치고 짜들러 말씀에 대한 갑갑함과 기쁨이 사라진 시간들, 영적인 기갈 속에 무너져버린 약한 믿음뿐이었다. 그러기에 이번 청지기훈련은 이런 모든 것들에서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회복의 기회였다.

먼저 회사 일정과 시간을 미리 조정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일서 4장을 깊이 읽고 묵상하였다. 어느 때와 달리 일찍 교회에 도착하여 찬양으로 준비하며 말씀을 들었다. 위임목사님은 거의 한 시간 만에 걸쳐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붙이는 사랑과 친밀한 사랑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셨다.(요일 4:10)

'주님! 내가 무엇인가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주님!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나요?' 정말 나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다. 그러나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그 뜨거운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나에게도 부여졌다는 사실이다.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과 같은 뜨거운 사랑을 내 심령에 채우는 일이다.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늘 넘쳐나게 하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나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사랑을 주 없다는 사실이다. 오직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총으로 나는 나의 가족을, 이웃을,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청지기훈련을 통해 내 심령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고 친밀하며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은 이제 나의 신과 믿음의 전부이자 생명이 되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오미라(집사, 19교구)

## ●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

이번 청지기훈련은 회개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뿐이다. 나는 스스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가 없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때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위선으로 가득 찬 나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고 자기 만족의 교만한 사랑이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나의 사랑은 그저 이기적인 것이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구하기만 하였다.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사랑의 이름으로 하찮은 힘을 휘두르곤,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운운의 기도를 쓰고 사랑한다고 굴절거릴 뿐이었다.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의 모습은 없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나의 가슴에 비추어볼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김희정(예배다우)

## ● 내가 하려고 했기에 ●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한없는 자비로움과 인자하심에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헌금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마음 깊이 회개하였다. 그리고 남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나는 결심했다.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모습은 사랑하는 것 같아 보였으나 속마음은 여전히 죄 속에 있었다. 해결되지 않은 나의 속마음은 언제나 복잡한 갈등으로 힘들기만 했다. 이같은 내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셨다. "서로 사랑하라."(요일 4:7) 복잡하여 힘들어 하는 나의 마음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계셨던 주님의 손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다. 사랑은 주님께 속한 것인데 그 사랑을

나의 노력으로 전하려고 했고 나의 힘으로 해 보려고 했기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 사랑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교만과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단 한 가지는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이번,

정용문(집사, 17교구)

## ●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

청지기훈련에 가져온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일 주일 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 '학원 수업을 빠지고 교회에 가야 하나? 아니면 나의 결석에 상관없이 진도를 나가는 학원에 가야 하나?' 어느새 세상의 길과 천국의 길 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주님을 위한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지어주신 것도, 나를 인도하신 것도 주님이셨다. 난 이 미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이다. '그래!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까지 학원 수업이 무슨 대수야!'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학원 원장님께 수업을 빠지고 교회에 가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의외로 쉽게 승낙하셨다. 그러나 교회로 향하는 내 마음 한 켠엔 불안함도 있었다. 학원 수업을 한 번 빠지면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청지기훈련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다. '이번만은 꼭 주님께 내 속사정을 털어놓고 모든 것을 말지자.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자리에 잘 지켜봤다가 활짝 열어놓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급하게 학원을 뒤로 하고 지하철도를 탔다.

교회에 약간 늦게 도착하여 1층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2층 뒤편, 약간은 뒤속속한 환경 속에서 설교를 들어야만 했다. 도착하자마자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으며 여기에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기도하니 눈물까지 나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후, 목사님의 말씀이 부담감과 중압감이 되어 나에게 다가왔다. '사랑? 사랑이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그 동안 어떤 사랑을 실천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았다. 이상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정작 설교를 들으니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머릿속에 뿔뿔하다. 두려웠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끝마다 "아편, 아편" 하며 심지어는 웃기까지 하는데, 나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학원까지 빠지면서 열심히 교회에 온 나에게 주님께서 주실 은혜는 없는 건가? 난 마음의 준비도 다 해 두었는데...' 바로 이때, 문득 중학교 1학년 때의 수련회 기억이 떠올랐다. 뭐라 말할 것도 없이 눈물이 줄줄 나오고 마음 한켠에 존재하던 고통을 주님께서 모두 치유해 주었던 기억을 말이다. 그 때는 마음의 준비조차 다 하지 못했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다. 오히려 지금은 마음의 준비도 되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 하니 마음이 답답했다.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을 막 휘젓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때, 내 의지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받는 거라고 말이다.

그런데, 나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자리를 준비하지는 했지만 정작 주님 앞에서의 간절함과 겸손함이 없었던 것이다. 다 의지와 최선의 노력으로 주님을 모실 수 없고, 더 나아가 이번 설교의 주제인 '사랑'은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다. 나를 부인할 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이끄실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이 메시지의 결론은 '사랑의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물론 앞에서 함께 말씀을 들은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 동안 세상 속에서 내 것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했던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부인하고 깨뜨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다.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진전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제 뜻이 아닌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이번,

이경아(중동2부)

\*종교개혁의 전통으로 유한히 많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한길 같이 믿음으로 회개한 자신의 모습을 간증하였다. 불완전 미려와 학업에 대한 중압감으로 힘들어 하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위로했던 것은 분명, 말없이 있다.(편지지 주)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6. 20.)

# 절 제 (갈라디아서 5:23)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절제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술과 담배를 하려는 욕망을 절제한다. 또한 건전한 인격, 바른 언행, 다이어트 등을 위해서 절제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절제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절제의 열매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맺을 수 없다.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절제는 하나님의 것이다 절제의 열매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맺을 수 없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에도 오직 성령께서 일하셔야 열매를 맺는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결국 어둠으로 끝난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절제여야 한다. 절제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길 때 승리할 수 있다.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은 이 땅이나 하늘에 없다. (갈 5:23) 최초의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주어졌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유 의지로 죄를 지었다. 그의 아들인 가인에게도 문제가 생겼다. 열납하지 않았던 제사로 인해 매우 분통해 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열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창 4:7) 그러나 가인은 죄에 의해 정복을 당하여 끔찍한 살인자가 되었다. 이처럼 모든 인류는 죄에 정복당할 뿐 죄를 다스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셨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죄의 정복이 가능해졌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죄로 이끄는 우리의 자유 의지를 제어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전할 때 절제를 언급하였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장군하니 벨리사가 두려워하여 대답하였대 가로되 내가 틀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행 24:25) 자유 의지를 제어하는 절제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신의 자신감을 믿음과 교환한다 자신의 자신감과 믿음을 교환할 때 절제의 열매는 맺힌다. “이끼기를 다루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전 9:25) 자신의 노력으로 절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뒤 자신의 모든 것을 믿음과 교환했을 때 그는 십자가를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바울은 어떠했는가? 루스다에서 얏은병이를 고쳐주자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었다. (행 14:12) 그때 그들은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복음을 외쳤다. (행 14:14~17) 이전에 바울은 모든 면에서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저극히 작은 자”(고전 15:9),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의 고백과 그런 삶이 되었다. 나를 움직이는 자유 의지와 믿음이 완전히 교환될 때 은총으로 가득한 삶은 열린다. 여하튼 나의 것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절제를 이론 줄 착각한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 이렇게 고백하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앉았삼나이다”(요 6:68,69)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자.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모든 소망을 두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제 22:20)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절제한다. 그래서 강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물론 이같은 노력이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유한하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산 217장) 영원한 삶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자. “내가! 내 것!”을 믿음과 교환하자. 요단강과 예리고성 앞에 선 여호수아가 되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되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요일 5:4,5) 절제에 대한 자신감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교환하자.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다 자신감을 믿음과 교환한 참 신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 자아가 믿음으로 바뀐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살기에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성령이 하시기에 이 모든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신자는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 15:5)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호 14:8) 절제의 열매로 가득한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것이다. 자신의 것으로 가득했던 지난 삶을 지금 회개하자. 절제를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진심으로 회개하자. (요일 1:9) 이제부터 자유 의지로 자신의 것을 말하지 말고 자유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자.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잠 12:28) “나의 자유 의지가 말할, 믿음으로 바뀌게 하소서!” 절제의 삶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신자의 삶을 통해 맺히진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맘이 든든하오니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찬 457장) 자신의 의지, 노력, 열정으로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 왜인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믿을 약할 때 주 날 붙들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찬 423장) 자기를 부인하자. 자기 십자가를 지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자. 이럴 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 기쁨으로 가득한 성령의 사역

선교지는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겐으라”(행 3:6)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느 학교에 들어갔다. 난망들이 초롱초롱한 어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주님은 예비해 놓으셨다.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어린 영혼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였다. “믿음의 씨앗이 복에 맺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다. 가처에서, 동네에서, 음식점에서 십자가를 전했다. 나중에는 전도지가 없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역전에서 소리내어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다. 이같은 말씀과 찬양은 모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열차 안까지 했다. 비록 육신은 피곤했지만 오히려 선교지에 오기하여서 성령의 은혜에 다들 감사하며 기쁨으로 가득했다. 특히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더욱 힘드실 텐데 오히려 젊은 우리들보다 기쁨으로 찬양하였다. 이처럼 이 모양 저 모양!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나가는 은혜가 감사할 뿐이다.

임남진(집사, 7교구)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 기 간                  | 평신도 단기선교사        |
|----------------------|------------------|
| 4월 4일(수) - 6월 23일(토) | 정영미 · 전혜연 (매미대부) |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6월 18일(월) - 6월 26일(화) | 20 · 17교구 연합   | 권영주 |
| 6월 19일(화) - 6월 27일(수) | 2 · 4 · 5교구 연합 | 박종철 |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5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6월 25일(월) - 7월 3일(화) | 10 · 11교구 연합 | 김연태 |
| 6월 25일(월) - 7월 3일(화) | 4 · 5교구 연합   | 박남주 |
| 6월 26일(화) - 7월 4일(수) | 17교구         | 강장식 |
| 6월 26일(화) - 7월 4일(수) | 20 · 18교구 연합 | 이정학 |
| 6월 26일(화) - 7월 5일(목) | 23교구         | 박규연 |

# 성령충만! 여름성경학교!

어느덧 녹음이 짙어지며 사람들의 이마에 땀을 송글송글 맺게 하는 뜨거운 여름이 문턱에 다가왔다. 초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얼마 후 있을 여름성경학교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7월 17일, 하루 동안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된다. 예전에 1박 2일의 여름성경학교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날을 기대하며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합심하여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잡힌 교사가 되어야 학생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잡히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선 내 안의 내 생각과 의지가 온전히 부인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는 주제 성구 아래 말씀을 익히고 깨닫는 순서들이 진행된다. 이 중 반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분반공부를 비롯하여 각종 자투리 시간, 점심식사 시간 등이 있다. 평소 주일에는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 채 안 된다. 반면 여름성경학교 때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낼 수 있다. 이 시간을 온전히 활용하여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또한 기도하는 바는 여름성경학교 때 반 아이들이 100% 다 참여하여 성령 안에서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것과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더불어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모세의 동역자 아론과 훌처럼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 선생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다. 한 달이 채 안 남은 이 기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기대되며 그 날을 소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박연숙(교사, 초등부)

## 2007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 부서명  | 기간               | 장소    | 주제                     |
|------|------------------|-------|------------------------|
| 영아부  | 7월 17일(화)        | 영아부실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  |
| 유아부  | 7월 17일(화)        | 유아부실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  |
| 유치부  | 7월 17일(화)        | 유치부실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  |
| 유년부  | 7월 17일(화)        | 유년부실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  |
| 초등부  | 7월 17일(화)        | 초등부실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  |
| 소년부  | 7월 17일(화)        | 소년부실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  |
| 중등1부 | 8월 10일(금)~11일(토) | 충현기도원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  |
| 중등2부 | 7월 26일(목)~27일(금) | 충현기도원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  |
| 중등3부 | 8월 17일(금)~18일(토) | 충현기도원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  |
| 고등부  | 7월 23일(월)~25일(수) | 충현기도원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  |
| 대학부  | 7월 3일(화)~5일(목)   | 충현기도원 | With Rom. ch.8(롬 8장)   |
| 청년1부 | 7월 16일(월)~17일(화) | 충현기도원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  |
| 청년2부 | 7월 16일(월)~17일(화) | 청년2부실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  |
| 장년1부 | 7월 7일(토)         | 충현기도원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  |
| 장년2부 | 7월 7일(토)         | 충현기도원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  |
| 장년3부 | 6월 28일(목)        | 베다니홀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  |
| 소망부  | 7월 3일(화)         | 갈릴리홀  | 내 교회를 세우리라(마 16:13~16) |
| 사랑부  | 7월 17일(화)        | 사랑부실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  |
| 에바다부 | 7월 16일(월)~17일(화) | 에바다부실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  |

## 소망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인내하여 연단을 받음으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있게 하소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에게서  
소망이 사라짐을 알게 하소서.  
오직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방망으로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만주(사랑부, 정신지체 3급))



##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
| 1140 | 노경숙 | 23 | 장년1부 | 김정연(9)  | 1159 | 윤진영 | 22 | 청년1부 | 이성훈(6)  |
| 1141 | 문영미 | 8  | 고등부  | 박연경(8)  | 1160 | 임명식 | 23 | 장년3부 | 이진규(6)  |
| 1142 | 맹호선 | 15 | 장년2부 | 주미애(15) | 1161 | 공진주 | 12 | 대학부  | 김소연(10) |
| 1143 | 문문주 | 2  |      | 박성영(16) | 1162 | 옥다영 | 16 | 청년1부 | 김성욱(15) |
| 1144 | 김은주 | 11 | 대학부  | 김석희(14) | 1163 | 강석광 | 5  | 청년1부 | 임병익(14) |
| 1145 | 이세라 | 6  | 대학부  |         | 1164 | 김재원 | 8  | 장년2부 | 이국철(7)  |
| 1146 | 고은이 | 3  | 대학부  | 공성연(5)  | 1165 | 최주영 | 24 | 청년2부 | 서정애(23) |
| 1147 | 차태현 | 18 | 청년1부 | 박윤석(9)  | 1166 | 김별화 | 10 | 청년2부 | 김해정(10) |
| 1148 | 김영옥 | 4  | 장년2부 | 정정실(4)  | 1167 | 첫두라 | 25 | 외선부  | 장종분(17) |
| 1149 | 김영선 | 18 | 청년1부 |         | 1168 | 아무라 | 25 | 외선부  | 장종숙(21) |
| 1150 | 최정숙 | 1  | 장년3부 | 신금순(12) | 1169 | 이신애 | 17 | 대학부  | 최안나(19) |
| 1151 | 이인숙 | 8  | 청년1부 | 김중재(12) | 1170 | 박미자 | 22 | 청년2부 | 박태남(11) |
| 1152 | 성문정 | 7  | 중등2부 | 조영희(4)  | 1171 | 김규홍 | 13 | 대학부  | 형경옥(13) |
| 1153 | 김효자 | 12 | 장년3부 | 정옥련(12) | 1172 | 문기선 | 11 | 고등부  | 김동휘(11) |
| 1154 | 전영환 | 18 | 장년3부 | 변경희(17) | 1173 | 빛트  | 25 | 외선부  | 이용진(1)  |
| 1155 | 임희진 | 12 | 청년1부 | 장은숙(9)  | 1174 | 대리미 | 25 | 외선부  | 최창하(21) |
| 1156 | 윤석동 | 22 | 중등3부 | 박지홍(22) | 1175 | 이수현 | 17 | 청년1부 | 김종훈(14) |
| 1157 | 박성진 | 8  | 중등3부 | 전하예(9)  | 1176 | 이희원 | 10 | 청년1부 | 함화자(10) |
| 1158 | 윤준홍 | 6  | 중등3부 | 김현순(6)  |      |     |    |      |         |

